

드디어 방학! 숨고르 새도 없이 종종대던 학기중의 일상을 잠시 밀쳐둘 수 있는 시간입니다. 때를 맞춰, 이 기간 동안에는 유난히 전시회와 음악회가 풍성합니다. 이 기회에 느긋한 걸음으로 전시회장을 찾아 그림들과 대화도 나누어 보고,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법, 감상의 확장을 도와줄 수 있는 몇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백화현·관악중학교 교사

그림과 음악 감상을 위한 길라잡이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지음 | 솔출판사 | 250쪽 | 값 15,000원
《나비아 청산가자》 진회숙 지음 | 청아출판사 | 246쪽 | 값 15,000원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이 책은 우리 옛 그림을 보는 법과 그것의 가치에 대해 눈이 번쩍 뜨이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 그림들에 대해 눈 뜬 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동양화라면 다 그것이 그것 같아 보여 그냥 쓱쓱 지나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책에는 우리 옛 그림 감상의 두 원칙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또 옛 그림에 담긴 선인들의 마음과 그것으로 살펴본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문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보람, 특히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인 까닭,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한국미술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더듬어 나가지요.

문장이 입말로 구수하게 풀어져 있고, 선명한 화보들과 함께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 매우 참신하고 친절하게 되어 있어 중학생 이상이면 대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우리 그림에 대한 맛과 멋을 알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읽기를 권합니다.

《나비아 청산가자》 “내가 전통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우리 음악이어서도 아니고, 서양음악에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어서도 아니다. 그것 자체가 결코 소홀히 평가할 수 없는 귀중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옛 그림 못지않게 우리에게 낯선 것이 바로 국악입니다. 그것들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그것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엄두도 못 내지요.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진회숙 선생님은 자신이 우리 전통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당위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예술적 가치 때문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 책은 우리 국악 중 그래도 비교적 친숙한 〈사랑가〉〈제비노정기〉〈육자배기〉〈해금산조〉 등 15곡에 대해서 그것의 감상을 위해 필요한 지식적인 것들과 그것에 얽혀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을 들을 때 저자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맛깔스럽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다 보면 국악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고, 그것들을 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꿈지락거리게 되지요. 중학생 이상 모든 분들께 읽기를 권합니다.

이 밖에도 서양화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위해서는 학교재에서 발행한 이주현의 《서양화 자신있게 보기 1·2》를 적극 추천하고 싶고, 서양음악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음악전문가인 쿠르트 팔렌 교수가 어린이들과 함께 신비한 소리의 세계를 탐험하며 주고받은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음악의 세계 1·2》(쿠르트 팔렌 지음, 에코리브로)를 적극 추천합니다. **추천**